

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일본 돗토리대학 주최 한-중-일 심포지엄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
2. 출장목적: 국제세미나 참석 및 발제
3. 출장지역: 일본 돗토리현
4. 출장기간: 2008. 1. 16. - 19.(3박 4일)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국제농업연구센터	선임연구위원	최 세 균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	비 고
1. 16.	이동(서울- 오사카 - 돗토리 현)	
1. 17.	한-중-일 국제세미나 참석: 주제발표	
1. 18.	지방정부(돗토리 현청) 방문, 농업현장 방문(락교 농장, 청배 과수원)	
1. 19.	이동(돗토리 현 - 오사카 - 서울)	

II. 주요 출장 결과

- 돗토리 현은 일본 내 최대 사과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지역임. 지역 특산품으로는 청배와 락교가 있음.
- 돗토리 현은 수출 농산물로 청배를 육성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음. 미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과의 경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선을 대만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.
- 중국과 한국으로의 수출에도 관심이 있음.

- 락교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사질토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임. 중국과의 경쟁으로 일시적으로 생산이 감소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, 중국산과의 차별화 등으로 다시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음.
- 국제 세미나에는 한국, 일본, 중국 등 3개국에서 한 사람씩 발제를 한 후 종합토론이 이루어짐. 참석자는 일반 청중 80명 정도와 발표자, 토론자, 세미나 주관 관계자 등 90명임.
- 국별 발제자
 - 한국: 최세균(한국농촌경제연구원), 일본: Hideo Furutska(돗토리 대학 교수), 중국: Han Yi Jun(농업부 농업경제연구소)
- 국별 농산물 무역정책, 농산물 교역, 3국간 농업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.
 - 3국의 농산물 교역구조 현황과 전망, 농업구조 변화와 농산물 교역구조 전망, 동북아 농업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,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농업정책 도입 가능성 및 방향, 보완적 농산물 교역 가능성 및 정부의 역할 등에 관심이 집중됨.
- 한, 일 양국은 모두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중국 농산물의 안전성,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. 특히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 수출 잠재력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증가는 향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.
-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원예작물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선도 다양화되

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 원예작물은 한국과 일본의 농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작목으로 나타난 것으로 중국의 원예작물 수출 증가는 향후 3국간의 경쟁 심화를 촉진할 전망이다.

- 이번 국제 세미나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또는 동북아 경제협력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의 협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.

- 우리나라가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문간, 부처간 협력과 다양한 연구가 요구됨.